

트렌드 따라잡기-밀레니얼·Z세대의 새로운 소비 스타일

‘덕투’ ‘소피커’ ‘체리피커’... 밀레니얼·Z세대가 소비하는 방법

〈덕질+투자〉

〈소신+스피커〉

〈실속파 소비자〉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5-18세에 해당하는 ‘Z세대’가 소비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자신의 소신을 소비에 반영한 ‘가치 소비’와 각종 구매 포인트를 알뜰하게 챙기는 ‘실속파’ 등 다양한 소비 성향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유통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밀레니얼 ‘소신 소비’에 집안다

#1 박성민(32·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씨는 최근 크라우드 펀딩(모금) 사이트 ‘와디즈’를 통해 20만원대(25만8000원) 노트북을 장만했다. 대기업 노트북과 비슷한 사양의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해 유통 마진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대 6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더불어 가격 대비 만족감을 높인 ‘가심비’를 갖춘 제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 달여 만에 6178명의 서포터가 모여 20억2300만원을 모금했다. 와디즈 펀딩 뿐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역대 최대 금액이다. 박씨는 “대기업 노트북의 경우 중간 유통 과정이나 광고 등으로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내실을 보고 물건을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2 극장가에서는 ‘영혼 보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영혼 보내기’는 영화를 이미 봤거나 사정상 볼 수 없는 관객이 표를 예매만 하며 좌석 점유율을 높여주는 영화 응원 방법 중 하나다. ‘영혼 보내기’가 활발히 이뤄진 영화 ‘결집’은 160만 관객을 넘겼고 개봉 한 달이 지나도 영화진흥위원회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 ‘가치봄’ 등을 통해 일부 극장에 상영됐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며 보람을 느끼는 ‘덕투’(덕질+투자)와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가치 소비’ 성향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또 소신과 들어맞는 상품을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칭하는 ‘소피커’(소신과 스피커를 합친 말)라는 말도 등장했다.

기업은 ‘명분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수입 일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앞세우는 식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지난해 실리콘 빨대 펀딩 성공률은 6000%에 달했고 남성을 색조 화장 모델로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는 출시 2개월 만에 전체 매출의 30%가 20대 남성 소비자로 채워지기도 했다.

소신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단연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 상품에 이어 출판·영화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며 투자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지난해 1300억원 규모로 매년 급격히 이상 커지고 있다. 업계 1위 ‘와디즈’ 모금액은 2016년 106억원, 2017년 282억원, 지난해 601억원으로 누적 1000억원을 넘겼다.

◇실속파 소비자 ‘체리피커’

불경기에 소비심리가 나빠진 가운데 ‘체리피커’(Cherry Picker)를 비롯한 새로운 실속파 소비자가 늘고 있다. ‘체리피커’는 맛있는 체리만 골라 먹듯 물건을 사지는 않으면서 실속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가짜 월급통장’을 만들어 수수료를 면제 받거나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획득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으는 행동은 체리피커의 고전적인 방식이다.

체리피커들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카드 혜택을 살뜰히 뽑아내고 있다. 50만명 넘게 설치한 앱 ‘체리피커 카드가게부’는 카드 사용 내역과 할인·적립 안내 문자를 자동 등록·분석해준다. 이용자들은 앱이 계산해 준 최적의 청구할인율을 적용해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하면 업체가 보상을 해주는 리워드 방식을 이용하거나 스타벅스 다이어리 등 ‘굿즈’(Goods)를 받기 위해 스티커를 주고받는 ‘스벅 스티커 동맹’도 새로 등장한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체리피커의 주 무대는 단연 신용카드 업계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쇼핑할 때’(23.3%)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주유’(19.7%)와 ‘대중교통 이용’(13.1%), ‘문화생활 할 때’(12.5%) 순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내세웠던 카드들이 울 울 줄줄이 단종되면서 체리피커들이 카드 혜택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더 편하게... ‘안방’ 된 문화·여가시설들

바쁜 일상 속 휴식을 취하고 싶은 현대인들이 늘면서 지역 문화·쇼핑 공간들이 이에 맞춰 ‘편하고 아늑하게’ 바뀌고 있다. 대형 영화관은 침대와 리클라이너(안락 의자) 등으로 객실 공간을 ‘안방’처럼 세단장 했고 백화점·대형마트는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매장 안에 마련했다.

지난 4월 개관한 CGV 광주금남로점은 일부 상영관을 ‘숲



영화관·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휴식 공간을 대폭 늘려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빈백’ ‘카바나’ 석을 도입한 CGV광주금남로점 객석 모습. <CGV홈페이지>

‘가성비’ 넘어 ‘가심비’ 갖춘 제품 인기 ‘크라우드펀딩’ 소신 소비 가장 활발 쇼핑·주유·대중교통·문화생활 등 스마트폰 앱 활용 할인·적립 혜택

‘혼영족’ 늘면서 대형 영화관도 변화 침대·안락 의자 등 아늑한 분위기로

속 캠핑장’처럼 꾸며놓았다. 이 상영관에는 실내 잔디를 깔아놓았고, 1인용 소파 형태의 ‘빈백’(Bean bag)석과 커튼이 드리운 ‘카바나’(Cabana)석 등 총 66석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당 1만4000~1만9000원 대로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커피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가족 단위 관객과 혼자 영화를 보러 온 ‘혼영족’이 늘어나면서 영화관은 점차 더 편안하고 더 아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아예 침대를 들여놓은 곳도 있다. 메가박스 점점점은 올해 9개관 전관 좌석을 리클라이너로 채워놓았다. 각 상영관에는 가로 190cm 크기의 전용 침대를 설치해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영화관 대표소 인근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안마기기는 이제 만화카페·모텔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전년대 후 문 거리에 있는 한 만화카페는 고급 안마의자실을 마련해 중장년층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지역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소비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휴식형 공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콤해진 라만시 넬리 한잔



크라우드 펀딩(모금) 사이트 ‘와디즈’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19~34세 90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꼴(64.4%)로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으로는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이 4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ASMR)을 시청한다’는 대답이 35.1%로 뒤를 이었고 수면·안마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 카페 방문(26.3%)이 3위였다.

조계현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은 “불경기 일수록 고객은 자신의 돈을 더 특별하게 쓰길 원하기에 확실한 콘셉트를 장착한 브랜드들이 승승장구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불경기에 소비심리가 나빠진 가운데 ‘체리피커’(Cherry Picker)를 비롯한 새로운 실속파 소비자가 늘고 있다. 체리피커의 주 무대는 단연 신용카드 업계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p>광주갤러리경매장</p> <p>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출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p> <p>☎ 010-6778-9330</p>	<p>완도전북</p> <p>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p> <p>☎ 010-2831-9257</p>	<p>청강창호</p> <p>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p> <p>☎ 062)528-7711, 010-3612-9794</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p> <p>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p> <p>☎ 062)232-0038, 010-2290-0038</p>	<p>학산운명감정원</p>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p>	<p>태극익스프레스</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p> <p>☎ 062)222-2424, 011-664-2202</p>	<p>양지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토산철학원</p> <p>북구 두암동 예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 010-4106-5055</p>	<p>그집고기</p>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p> <p>대표 양병학 ☎ 010-6648-8842</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 062)263-5383, 010-6338-5383</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초대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서 ☎ 062)222-1936</p>
<p>무크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p> <p>☎ 062)370-9258</p>	<p>클로버부동산</p> <p>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p> <p>☎ 010-5707-6676</p>	<p>청학철학원</p>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 010-9866-2332</p>	<p>고흥나루터</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침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 062)222-3092</p>
<p>국수나무용봉점</p> <p>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 062)526-5475, 010-8621-5959</p>	<p>금강버티컬</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로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 062)514-6118, 010-5627-6119</p>		